

# 2019 국별 진출전략

## 벨라루스



<b>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b>	<b>3</b>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대외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WTO 가입 움직임 가속화	5
나. 韓-EAEU FTA 추진 동향과 기대효과	7
다. 미국의 對러 경제제재가 벨라루스 경제에 미치는 여파	8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b>12</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분석	1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7
나. 수출입 동향	18
다. 투자유치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0
가. 교역	20
나.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22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5
<b>III. 진출전략</b>	<b>26</b>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7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2
첨부 2.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4



#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전망

#### □ 2015~2016년 경기침체 후 2017년부터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는 다시 성장속도가 둔화될 듯

- 러시아 경제에 의존적인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 벨라루스의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거 2년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산업생산과 소비시장 전반의 활력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 벨라루스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World Bank, EBRD를 비롯한 유수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벨라루스 경제는 과거와 대비해서 2018년에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이고, 2019년부터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전문가들이 이렇듯 다수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는 배경에는 벨라루스를 둘러싼 대내외 요인 가운데 아직 불안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벨라루스의 산업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가가 회복되어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벨라루스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즉, 유가시장의 불안은 벨라루스의 산업생산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둘째, 벨라루스의 수출이 회복된 것은 러시아 루블에 비해 벨라루스 루블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對러 수출이 되살아난 것에 기인한다는 평가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불안정한 만큼 벨라루스 루블도 안정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끝으로, 벨라루스의 유동성 문제가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임. 새로운 외채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단기 채권을 상환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정부재정의 불안정성은 벨라루스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늘 작용하고 있음

- EBRD의 경우, 벨라루스의 경제성장률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로 전망하고 있고, World Bank의 경우에도, 3%를 약간 못 넘는 수준에서 전망하고 있음. 비록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19년 경제전망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2015년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를 회복했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는 눈에 띄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 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인 구	백만 명	9.47	9.48	9.50	9.50	9.49	9.49	
명목GDP	십억 달러	78.8	56.5	47.4	51.2	51.2	51.7	
1인당 명목GDP	달러	8,295	5,949	5,004	5,414	5,426	5,498	
실질성장률	%	1.6	-3.9	-2.6	2.4	3.0	3.0	
실 업 률	%	0.5	1.0	0.8	1.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8.1	13.5	11.8	6.4	7.6	5.9	
산업생산량	십억 달러	65.4	46.8	41.7	46.5	-	-	
총수출	백만 달러	43,556	26,686	22,515	29,212	35,000	42,000	
(對韓 수출)	"	44.9	46.9	37.2	44.6	40.0	36.0	
총수입	"	43,946	30,312	26,504	34,235	41,000	48,000	
(對韓 수입)	"	41.0	47.0	28.5	28.6	35.0	42.0	
무역수지	백만 달러	-390	-3,626	-3,989	-5,023	-6,000	-6,0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9	1.86	1.96	2.03	2.09	2.27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01.7	72.4	69.3	76.3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IHS Market, World Bank 등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韓-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 정부의 주요한 통상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EAEU 측과 FTA 체결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정부 간 협의회를 추진
- 2017년 4월 벨라루스에서 열린 제3차 협의회에서 벨라루스 정부는 韓-EAEU FTA 협상개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 벨라루스 정부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체결뿐 아니라, WTO 가입절차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역, 투자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경제권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가. 대외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WTO 가입 움직임 가속화

### □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필요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멤버이자,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상, 벨라루스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임
    - 더욱이, 러시아 경제가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원조(차관제공 등)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임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산(유럽, 중국, 한국 등) 제품으로부터 자국산 제품을 방어하는 것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벨라루스 정부도 잘 알고 있음
    - 근본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투자율이 저조하여 진척 속도가 미진한 상태임
    - 러시아를 대신할 파트너 물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차관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2015년 시진핑 주석 방벨 시 벨라루스 국영은행과 10억 달러 규모 차관 계약 체결

[ 벨라루스 차관 도입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1~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액	1,934.9	100.0	4,040.7	100.0	871.5	100.0
ESDF	800.0	41.4	800.0	19.8	-	-
러 정부 및 은행 차관	552.0	28.5	1,309.5	32.4	222.3	25.5
중 정부 및 은행 차관	446.9	23.1	306.6	7.6	14.2	1.6
World Bank	134.2	6.9	159.4	3.9	33.5	3.8
EBRD and NIB	1.8	0.1	65.2	1.6	1.5	0.2
Eurobonds	-	-	1,400.0	34.7	600.0	68.9

주: ESDF(유라시아안전화개발펀드, Eurasian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Fund)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IHS Market, World Bank 등

- 벨라루스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WTO 가입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 양자협상이 우선 타결되어야 하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경제 관계를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됨
  - 벨라루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함

## □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韓-벨라루스 양자협상 완료

- 벨라루스는 1993년 9월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가입절차를 진행 중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협상이 우선 타결되어야 함
    - \* 현재, 벨 측은 WTO 가입을 위해 약 40여개의 국가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
- 우리나라와 벨라루스 양국 간 양자협상은 2007년 10월 1차 협상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양자협상이 진행되었음. 2017년 1월 6차 양자협상을 끝으로 양자협상은 완료되어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임
  - 韓-벨 양국 간 상품 양허안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시	결과	잔여 품목 수
2007. 4	(한) 1,195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양허 요구	1,195
2007. 6	(벨) 520개* 품목에 대해 우리 측 양허 요구 수용, 자동차 등 양허 후퇴 * 낙농제품(04류), 돼지고기(16류), 화학제품(28류, 29류, 38류) 등	675
2007. 10 (1차 협상)	(한) 414개 품목에 대해 벨라루스 측 양허안 수용	261
2007. 10	(벨) 개선된 양허안 제시 158개, 자동차를 포함한 101개 품목은 입장유지, 우리 요구 수용 1개	260
2007. 12	(한) 벨 측 양허안 수용 58개(밀가루, 빵류, 임업제품, 과자류 등), 양허요청 유지 202개(85개는 요구수준 완화)	202
2008. 2	(벨) 개선된 양허안 제시 23개, 우리 요구 수용 2개	200
2008. 5	(한) 벨 측 양허안 수용 42개, 양허요청 유지 158개* * 자동차,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담배, 의료용품 등	158
2008. 11	(벨) 개선된 양허안 제시 158개, 우리 요구 수용 7개	151
2008. 12	(한) 벨라루스 측 양허안 수용 65개, 자동차(HS8703) 품목 양허요청 강화	86
2009. 3 (2차 협상)	(벨) 우리 측 양허요구 수용 5개(음식료품), 입장유지 80개*, 양허개선 1개(인쇄물) *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양허세율이 100%	81
2009. 3	(한) 벨 측 양허안 수용 10개(과자, 음료), 입장유지 71개* * 자동차(HS 87), 전기기기 및 부품(HS 85), 광학·의료·정밀기기(HS 90) 등	71
2013. 10	HS 2007 전환으로 미합의 품목 22개 품목 추가	93
2013. 11 (4차 협상)	2010년 1월 3국 관세동맹 체결로 미합의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 조정 o (Kor ≥ Bal)인 10개 품목의 양허관세 수용 - 기타 생활용품 및 공예품(HS 4602), 반도체집적회로부분품(HS 8523) 등 o (Kor < Bal) 83개 품목 중, - (57개 수용가능) 담배(HS 2402), 의약품(HS 3002), 목제생활용품(HS 4602), 인쇄물(HS 4911), 화장지류(HS 4818), 축전자류(HS 8507), 전구류(HS 8539), 중고 자동차 일부(HS 8703), 기타 중전(heavy electric) 기기(HS 8542), 반도체집적회로부분품(HS 8523) 일부, 의료용 기기(HS 9019, 9021) 등 - (26개 수용불가) 신차(HS 8703), 의료용품(HS 3006) 등	26
2016. 12	(벨) 수정양허안 제출(HS 2012)	1126
2016. 12 (5차 협상)	(한) 벨 측 수정양허안 검토결과 미합의 품목(26개)*에 대해 수용 가능 * 폐의료용품(HS30), 자동차(HS87)	1100
2017. 1 (6차 협상)	(한) 벨 측 수정양허안 검토결과 기 합의 품목 모두 수용 가능	0

## 나. 韓-EAEU FTA 추진 동향과 기대효과

### □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일정

- 2015년 11월, 한-EAEU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한 후 세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2016년 8월 민간공동연구 최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 민간공동연구 주체 : (韓) KIEP-(EAEU) 러 대외무역아카데미
- 2016년 9월, 한-EAEU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완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를 계속해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실제 2017년 4월까지 우리나라와 EAEU 측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가진 바 있음

#### [ 후속 협의 진행상황 : 비공식 정부 간 협의회 운영 ]

구 분	개최 시기	개최 장소	주요 협의 내용
1차 협의회	2016. 10. 5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협상 개시 결정을 위한 정부 간 보완</li> <li>• 논의 이어나가는 것을 합의</li> </ul>
2차 협의회	2016. 11. 9	대한민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개시 전 협의완료 필요사항(절차/품목 등)</li> <li>• 명확히하기로 결정</li> </ul>
3차 협의회	2017. 4. 10	벨라루스 (민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WTO 가입 양자협상 완료</li> <li>•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벨라루스 지지 유도</li> </ul>

- 우리 정부는 제3차 협의회 후, ① 정부 차원의 예비협의를 종료하고, ② 한-EAEU FTA 일반 원칙과 협상개시를 위한 추진계획 합의를 희망하고 있음
-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EAEU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는데, 2018년에 이어 2019년부터는 FTA 체결이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 기대효과 및 우리 정부의 對EAEU 통상정책 방향

- 우리 정부와 EAEU 측 조사 결과, 韓-EAEU FTA 발효 시 모든 EAEU 회원국과 한국의 GDP가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사되었음
  - \* 상호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50% 감소 가정 시 러시아(0.64%, 75억 달러↑), 아르메니아(2.23%, 2.6억 달러↑), 벨라루스(2.93%, 22억 달러↑), 카자흐스탄(1.06%, 23.1억 달러↑), 키르기스스탄(2.02%, 1.5억 달러↑), 한국(0.23%, 32억 달러↑)
- 대외 교역에서도, 양측 분석모형 모두 FTA 체결이 양자 간 교역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음
  - \* (EAEU 측 모델) : (한→EAEU) 약 18억 달러 증가, (EAEU→한) 약 26억 달러 증가
  - \* (우리 측 모델) : (한→EAEU) 약 17억 달러 증가, (EAEU→한) 약 9.2억 달러 증가

## 다. 미국의 對러 경제제재가 벨라루스 경제에 미치는 여파

### □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확대로 다시 출렁이는 러 루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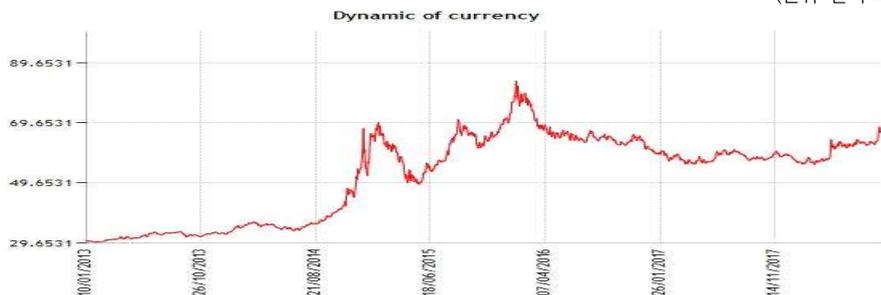
- 2018년 8월 22일 미국 재무부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으로 석유거래를 한 러시아 해운사 2개에 대해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음
  -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가 있기 2주 전인 8월 초순부터 러시아 외환시장은 급격하게 출렁이기 시작했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66~68루블 정도를 유지하였음. 이는 2014년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환율과 유사한 수치임
- 러시아 루블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오랜만에 침체기를 벗어난 벨라루스 경제에도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는데, 경제구조상 對러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 경기 호불황 여부에 따라, 벨라루스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

### □ 사태의 여파 : 불확실한 러시아의 미래, 루블 가치 하락, 대외교역 감소

- 과거에는 러시아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예측 불확실성이 높았고, 그에 따라 부침이 있었음. 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유 수출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 러시아 정부,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소위 말해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투자해 왔던 것임
- 그러나 경제제재는 러시아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강력한 압박임. 원유를 생산해서 낮은 가격에 팔아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싶어도, 미국과 EU, 그리고 동조세력이 수급선을 하나씩 차단하면 자원수출이라는 비장의 무기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됨
-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는 강력했고, 그 결과는 러시아로서 뼈아픈 것이었음. 루블 가치의 폭락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소연방 해체 이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다음 20여 년간 쌓아온 러시아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음

[ 달러 대비 러 루블 환율추이(2013. 1. 1~2018. 9. 4) ]

(단위: 달러 대비 러 루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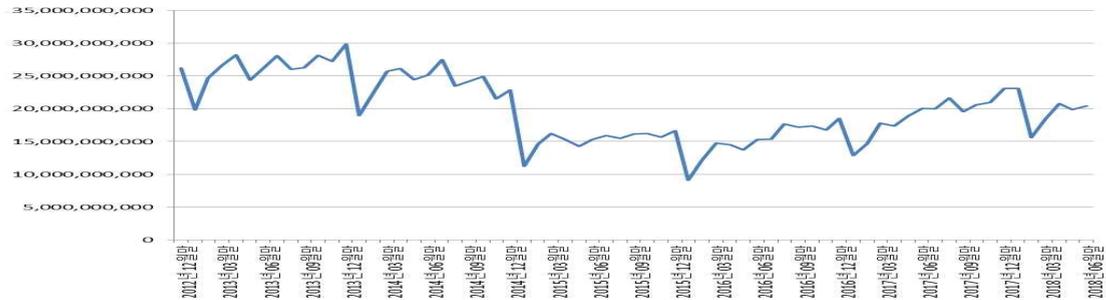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 루블의 가치가 급작스럽게 하락하면서, 러시아의 수입 또한 급격히 떨어졌는데,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음. 그 결과, 러시아의 대외 수출 또한 수입과 유사한 양상으로 침체를 겪었음

[ 러시아의 대외 수입추이(2013. 1. 1~2018. 5.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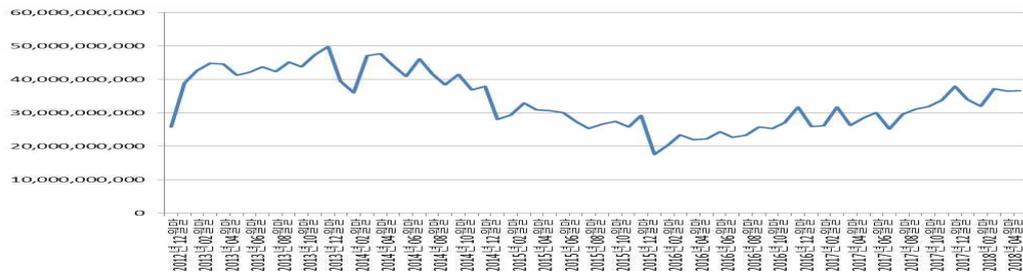
(단위: 달러, 좌축 수치 단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에서 그래프 작성

[ 러시아의 대외 수출추이(2013. 1. 1~2018. 5. 31) ]

(단위: 달러, 좌축 수치 단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에서 그래프 작성

- 2018년 들어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추가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러시아의 대외 교역이 차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임
- 러시아 루블 환율을 보면, 8월 이후 달러 대비 루블 환율이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제재 이외 뚜렷한 내·외부 요인이 없어, 결국 추가 경제제재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2018년 8월 한 달 달러 대비 러 루블 환율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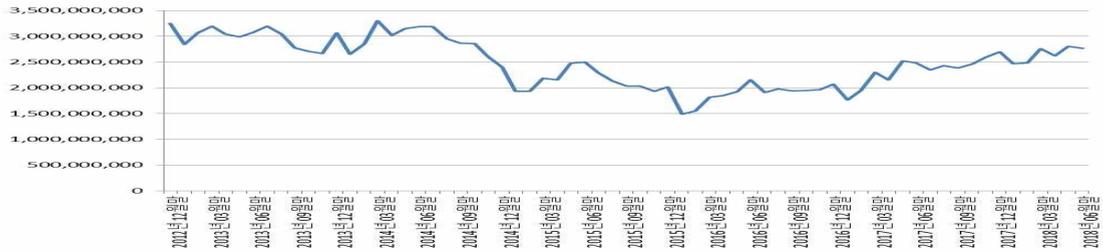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 □ 러시아 경제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벨라루스 경제

- 벨라루스의 대외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50% 수준인데, 아래 그림 두 개를 보면, 벨라루스의 대외 수출추이와 대러 수출추이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즉, 벨라루스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벨라루스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벨라루스의 대외 수출추이(2013. 1. 1~2018. 6.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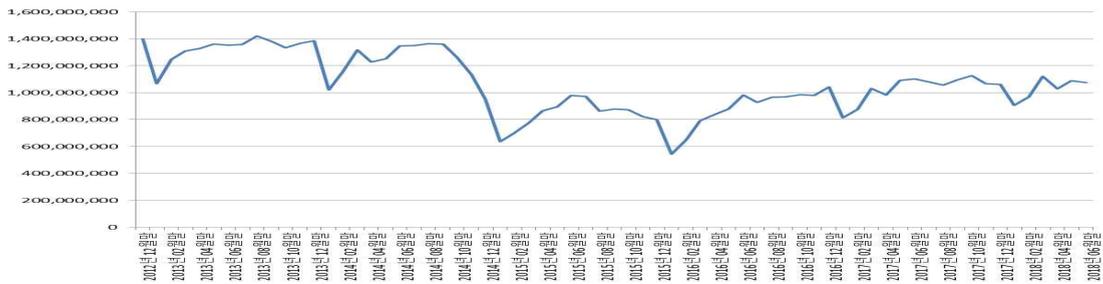
(단위: 달러, 좌측 수치 단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에서 그래프 작성

[ 벨라루스의 대러 수출추이(2013. 1. 1~2018. 6. 30) ]

(단위: 달러, 좌측 수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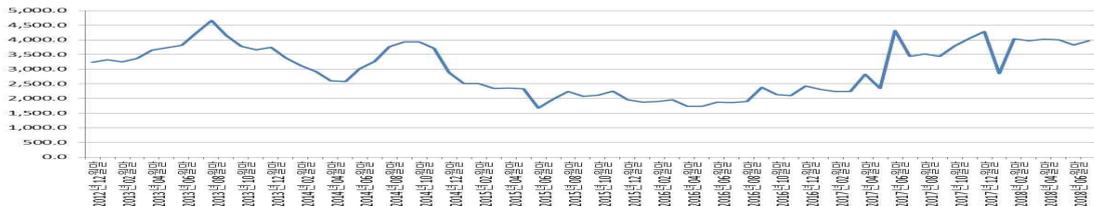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에서 그래프 작성

- 한편 러시아의 대외 수입에서 벨라루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4~6%선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 위의 그림 <러시아의 대외 수입추이>에서 보듯이, 벨라루스의 대러 수출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즉, 러시아 수입에서 벨라루스 비중이 비교적 작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의 대러 수출은 러시아의 대외 수입동향에 많이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음
  - 해석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러시아의 수입 여력과 향후 전망을 통해, 벨라루스의 대외 수출 전반을 전망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벨라루스에서는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교역에서 루블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러시아 루블의 환율추이와 벨라루스 루블의 환율추이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 실제로, 벨라루스의 외환보유고를 살펴보면, 벨라루스 대외 수출추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물론, 외환보유고가 무역수지에 전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외 차관금액 등도 살펴봐야 하지만, 낮은 국가 신용등급으로 인해 벨라루스의 대외 차관 도입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고는 대외 수출 등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아래 그림 외환보유고 추이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이 들어온 특이치가 반영된 것임

[ 벨라루스의 외환보유고(금 보유량 제외) 추이수출추이(2013. 1. 1~2018. 7. 31) ]

(단위: 달러, 좌측 수치 단위)



자료원: 벨라루스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통계자료 바탕으로 무역관에서 그래프 작성

### □ 2019년 벨라루스 루블 환율의 안정성 여부가 우리 수출의 관건

-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대략 1달러에 2루블 내외선에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안정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유지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벨라루스 루블 환율도 미세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 현재 벨라루스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40억 달러 내외이고, 대외 수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방어에 임하는 정부의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는 있음
- 하지만 과거의 외환보유고와 환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대략 벨라루스 외환보유고가 25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여파가 벨라루스 대외 수출, 대러 수출, 그리고 외환보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특히 벨라루스 루블의 환율추세를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벨라루스는 현 대통령이 24년간 장기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임. 일부 정책에 대한 반대집회와 반정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의 집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벨라루스는 무역·투자유치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러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벨라루스의 대외교역 또한 매우 위축되었음.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2018년 들어서는 대내외 거시경제지표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음
- 대부분의 경제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2019년에 경기회복 추이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러시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벨라루스 경제에 대한 여파, 벨라루스 루블의 가치 하락, 만성적인 외환보유고 부족,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벨라루스의 점진적인 경제발전애 장애 요인이자 불안요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가. 정치 환경

##### □ 벨라루스의 최근 정치 동향

-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 정책을 펼치려 했으나 현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 이후 구소련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전환되었음
  - 벨라루스의 경제는 1994년 이후 24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루카셴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루카셴코 대통령은 2006년 5월 대선에서 82.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3번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79.6%의 압도적인 득표로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 2015년 10월 11일 83.49%의 역대 대선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 2017년 현재 24년째 집권 중임
  -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벨라루스 대학 설문조사 결과 2006년 및 2010년 대통령 선거에 루카셴코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벨라루스 국민의 약 70%는 찬성, 18.8%는 반대, 12.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바 있음

## □ 벨라루스의 정부 체제

- 벨라루스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
- (입법부) 입법부(Natsionalnoye Sobranie)는 1996년 11월 채택된 개정헌법에 따라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하원(Plata Predstaviteley)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임기 4년의 1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발의, 법률안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함
  - 상원(Sovet Respubliki)은 지역대표제 등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6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수도인 민스크시와 6개 주(Oblast)가 각각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8명을 임명함. 상원은 개헌안 승인,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검찰총장·중앙은행장 임명 동의권 등을 행사하고 있음
-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재판 및 대통령 탄핵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민사·형사·행정·군사 소송을 담당하는 일반법원, 경제소송을 담당하는 경제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벨라루스의 최고법원으로 대통령·의회·대법원 등이 제기하는 위헌법률 심사, 대통령 탄핵 등 헌법문제를 심의,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12명 중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원은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함
  - 고등법원(Regional Court)은 6개 주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 행정 구역별로 설치되어 있음
  - 경제법원은 개인, 법인, 외국인 간 경제·경영 문제를 관할하는데, 최고경제법원, 주경제 법원, 민스크시 경제법원이 있음
- (행정부)
  - (대통령)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벨라루스의 국군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음
  - (내각(Cabinet of Ministers)) 내각은 총리, 부총리 5명,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총리 사임, 의회의 내각불신임 시 각료 전원이 사퇴함.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2014년 12월 27일 총리,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6개 주로 구성되며 단체장(주지사)은 대통령이 임명함. 주지사는 주집행 위원회(oblispolkom)의 장으로서 주 행정을 관장함

## 나. 경제 환경

### □ 벨라루스 경제 전반의 특징

-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에 의해’ 버티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특혜(벨라루스에 대한 가스, 원유 염가수출, 정제유 수입관세 인하) 및 구제금융 지원(EurAsEC) 등으로 지탱되고 있음
- 하지만 벨라루스의 가장 큰 거래국인 러시아의 루블 가치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폭락과 달러 강세 속에서 연일 추락해, 벨라루스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2015년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6%를 기록해 경기침체가 이어졌음
- 2017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15~201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4%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World Bank, EBRD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예측하고 있고, 2019년에도 대략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성장률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임. 벨라루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저조한 투자율 등으로 인해 진척 속도가 미진한 편임. 이로 인해 벨라루스 정부는 금융 지원의 대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거세게 요구하는 러시아를 대신할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는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을 펼치고 있음

### □ 벨라루스 경제 전망

- 벨라루스 대외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및 러시아 루블의 대폭 평가절하로 인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경기침체를 겪었음. 2017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2018년에도 산업생산 확대,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뚜렷한 경기회복을 보였음
-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들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다시 이어지면서, 러시아 루블 가치가 떨어지고, 덩달아 벨라루스 루블도 가치가 하락하는 등 2015~2016년 경기침체 때의 시장 불안요소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함
- 과거처럼 급격한 경기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가 탄력을 받아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에는 대내외 환경을 따져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다. 산업 환경

### □ GDP 내 산업별 비중을 보면, 타 CIS 국가에 비해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벨라루스의 산업별 GDP 비중은 대략 제조업 22.7%, 도소매 유통업 9.7%, 농업·임업·수산업 7.8%, 교통물류업 5.8%, 건설업 5.3%, 에너지 산업 3.2%로 나타났음
- 현재 국가 경제구조개혁에 따라 GDP에서 농업과 공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국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벨라루스 경제가 러시아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인 원유정제업,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공업과 IT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벨라루스는 다른 구소련연방 국가들과 달리 천연자원이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임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 수준이 상당했으며, 여타 국가와 달리 소련 해체 후에도 자국 내 제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 가전제품(ATLANT사), 상용차(MAZ사) 등
- 2015년 발표한 ITU의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ICT 부문이 성장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2017년 ICT 발전지수 종합순위에서 CIS 국가 중 벨라루스가 선두이며, 기술(Skills) 부분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한국 2위, 벨 5위)

구분	ICT 접근		ICT 활용		기술		종합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벨라루스	7.87	34	6.54	40	8.93	5	7.29	32
대한민국	8.85	7	8.71	4	9.15	2	8.85	2

#### < Hi-Tech Park >

- 벨라루스 IT 인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Hi-Tech Park는 2006년 첫 입주 이후 현재 160여개의 IT 관련 기업이 활동 중(한국의 판교단지과 유사)
  - 입주기업의 60%가 외국의 투자 또는 합작 회사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목적
- 한국은 2014년에 Hi-Tech Park 내에 '한-벨 정보접근센터'를 개소, 센터 내 한국문화체험라운지, 인터넷 라운지, ICT랩, 세미나룸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약 9천 명 이용

## 라. 정책·규제 환경

### □ 자국산업 보호정책 도입

- 벨라루스는 WTO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도 병행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러시아 경제위기에 따라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균형무역수지 달성을 위해 수입도 줄이고자 각종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는 외화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디폴트를 막기 위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입장임
- 상점에서 벨라루스 제품 진열 우대 의무, 수입 소비재에 대한 별도의 위생인증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 강력한 외환 통제로 인해, 기업의 수출입 거래에 애로사항 다대

- 벨라루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대금 선지불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첫 거래 시 수입자와 수출자가 만족하는 대금지불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
- 벨라루스의 ‘대외무역거래법령’을 확인해보면,
  - 대외무역 거래 건을 위한 해외 송금 후 60일 내에 물품의 세관신고가 이뤄져야 함
  - 물품이 기한 내 벨라루스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입기업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음. 벌금액은 하루당 송금 금액의 2%가 부과되며 벌금액은 송금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한 내(60일 내) 세관 신고가 불가할 경우 벨라루스 중앙은행에 세관 신고 지연을 신고하고 확인 받게 되면 벌금부과 없이 세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세관 신고 연장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1년에 1회만 허가
-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세관 신고 연장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이 부적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를 제출할 시
  - 대외무역(세관 신고) 연장 신청일이 대외무역 완료일(송금 후 60일 이내)을 넘어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벨라루스 정부와 국립은행이 정한 법령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대외송금 후 제품 현지 도착을 60일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겪은 벨라루스의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과 자국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함인데, 벨라루스 수입기업들도 자국 은행이 아닌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의 은행을 통해 대외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 2. 시장 분석

- 벨라루스 시장은 규모가 작고 구매력에 한계가 있으나, 소량주문에도 대응한다면 꾸준히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시장임. 특히,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인해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단일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연간 1억 달러 미만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對벨라루스 우회수출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벨라루스 진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치가 충분함.
- 2019년에는 韓-EAEU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덩달아서 벨라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EAEU 출범으로 인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단일시장 형성

- 벨라루스는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EAEU 출범으로 인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구성하고 있음
  -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벨·카자흐 3국 관세동맹을 토대로 2015년 1월 출범한 경제연합체, 현재 회원국 5개국(3국+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특히, 러시아의 주요 도시이자, 최대 소비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700여km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차량(trucking)을 통한 운송시간도 10시간 미만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관세 동맹국이기 때문에, 국경 간 세관이 없는 프리패스(Free Pass) 지역임. 따라서 사실상 벨라루스로 반입된 수입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러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함
  - \* 다만, 제품인증(Certification)이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은 관계로, 품목에 따라 러시아 유통을 위해 러시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발생

#### □ CIS와 EU 양대 경제권 모두 공략 가능한 물류·유통 및 투자진출의 요충지

- 벨라루스는 러시아 외에도 동유럽, 발틱 3국, 우크라이나를 접경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륙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임
  - 즉, CIS 경제권과 EU 경제권 양쪽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물류 및 유통의 요충지임
- 최근에 중국의 벨라루스 투자진출(정부차관 제공 등)이 활발하고, 벨라루스 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산 제품의 유럽 내 유통 루트로서 벨라루스를 활용하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음

-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위해 다양한 우회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진출의 베이스캠프로 벨라루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임
  - 벨라루스 내 제조기반이 타 CIS 국가에 비해 명맥을 유지하고 잘 갖춰져 있는 편이지만, 제조시설 노후화, 일부 산업(운송기계, 전자제품 등) 편중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 투자진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벨라루스 국내 제조기반 가운데, 외국기업 진출을 필요로 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진출을 한다면, Made in EAEU 장점을 누리면서 EAEU 시장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나. 수출입 동향

-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특히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의 가공품), 화학제품(칼륨비료), 기계 및 차량(트랙터 및 트럭), 농식품류, 금속류 등의 제품으로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44.1%), 우크라이나(11.9%), 영국(8.6%), 네덜란드(3.9%), 독일(3.9%) 등임
- 반면 수입품목은 에너지, 원자재 및 부품, 소비재, 기계장비류 등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특색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57.2%), 중국(8.1%), 독일(5.1%), 폴란드(4.0%), 우크라이나(3.6%) 등임

[ 2017년 기준 벨라루스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HS	금액	증감률	품목명	HS	금액	증감률
	총액	-	28,082.4	24.33	총액	-	33,452.9	25.71
1	연료/에너지	27	6,926.7	42.86	연료/에너지	27	9,669.0	31.14
2	비료	31	2,644.0	8.12	보일러/기계류	84	3,295.4	29.16
3	일반차량	87	2,240.4	25.05	전자기기	85	2,171.6	23.22
4	낙농품	04	2,173.0	16.89	철강	72	1,564.9	47.67
5	보일러/기계류	84	1,516.9	16.90	플라스틱 제품	39	1,549.8	15.77
6	목재	44	1,124.2	33.23	일반 차량	87	1,332.2	31.60
7	플라스틱 제품	39	1,065.9	16.72	과실/견과류	08	985.6	△8.29
8	전자기기	85	847.2	23.78	철강제품	73	943.0	32.80
9	철강	72	840.4	35.23	의료용품	30	716.6	19.62
10	철강제품	73	795.8	23.77	광학제품	90	608.3	34.4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다. 투자유치

### □ 벨라루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동향

- 벨라루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 관련 법적 안정성이 미비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관행 등 비매력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설 행정절차 관소화 등 벨라루스 내 외국인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대한 시행령 9조를 공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보증 강화 및 정부간섭 축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벨라루스 FDI 유치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
FDI	10,358.4	11,083.4	10,168.9	7,214.4	6,928.6	7,634.2	3,025.6

주: 매년 말 누계 기준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러시아가 전체의 38.0%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유지했음. 영국이 26.6%, 사이프러스가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벨라루스의 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액 기준) 국별 비중현황 ]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1	러시아	41.6	러시아	43.2	러시아	51.5	러시아
2	영국	18.6	영국	20.6	영국	17.1	영국	26.6
3	네덜란드	13.0	네덜란드	10.8	사이프러스	7.3	사이프러스	7.2
4	사이프러스	6.2	사이프러스	7.1	오스트리아	3.4	아일랜드	3.6
5	오스트리아	3.5	오스트리아	3.1	리투아니아	3.0	폴란드	3.3
6	독일	2.5	중국	3.0	중국	2.9	오스트리아	3.0
7	중국	2.3	폴란드	2.5	기타	14.8	중국	2.8
8	리투아니아	1.5	리투아니아	2.0			기타	15.5
9	미국	1.1	우크라이나	1.1				
10	우크라이나	0.9	라트비아	0.9				
	기타	8.8	기타	5.7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가. 교역

##### □ 침체되었던 벨라루스 수출 2018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

- 1992년 수교 후, 한-벨 양국 간 교역은 단기간 내 급격히 성장해 왔고, 2013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규모가 작다 보니 연도 별로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벨라루스로 직접 수출하는 금액만 우리 통계상에 잡히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 등을 통해 벨라루스로 우회수출되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벨라루스 관세청이 원산지 등을 따져본 결과,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규모는 매년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6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조금 회복된 수치를 보였고,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對벨라루스 수출이 약 20% 이상 늘어났음. 반면, 우리의 對벨라루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줄어들었는데, 벨라루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거의 매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 벨라루스 시장이 차츰 알려지면서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현지에서 가전, 핸드폰,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가 높지만, 이들 제품은 벨라루스로 직수출되는 제품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벨라루스로 유통하고 있는 상황임
-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의 수출, 특히 직수출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 또한 매우 다양함. 그러나 수출금액 측면에서 소규모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수출 성공·실패 사례를 특정하기에는 규모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최근 의약품,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이들 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주요 교역품목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8
수출	금액	40,954,795	47,025,690	28,469,499	28,644,879	21,263,342
	증감률	△42.6	14.8	△39.5	0.6	18.3
수입	금액	44,893,995	46,940,056	37,162,633	44,612,722	30,844,643
	증감률	51.4	4.6	△20.8	20.0	△12.7

자료원: KITA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달러,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자동차 8,503,544 (21.1)	전자응용기기 2,571,036 (19.7)	농약 및 의약품 2,183,549 (△10.5)	계측제어분석기 1,992,032 (88.7)	자동차부품 1,903,451 (△51.4)
2015	자동차 20,841,491 (145.1)	자동차부품 4,096,345 (115.2)	농약 및 의약품 2,441,561 (11.8)	식품포장기계 1,906,247 (156.2)	원동기 및 펌프 1,567,428 (3.7)
2016	원동기 및 펌프 3,800,742 (142.5)	합성수지 3,476,394 (2,809.7)	농약 및 의약품 2,946,498 (20.7)	자동차부품 2,464,596 (△39.8)	고무제품 2,092,026 (67.4)
2017	농약 및 의약품 3,123,901 (6.0)	기계요소 3,072,837 (780.1)	자동차부품 2,914,246 (18.2)	합성수지 2,619,308 (25.2)	합성수지 2,538,348 (△27.0)
2018. 1~8	고무제품 2,636,704 (15.7)	기타기계류 2,339,451 (117.2)	농약 및 의약품 1,744,686 (△10.7)	계측제어분석기 1,481,720 (85.1)	전자응용기기 1,118,717 (47.8)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원: KITA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달러,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칼륨비료 36,030,627 (70.2)	반도체 4,664,915 (△3.3)	유리제품 1,294,675 (70.6)	화학제품 1,016,017 (△22.0)	광학기기 555,070 (2.1)
2015	칼륨비료 37,232,811 (3.3)	반도체 4,241,565 (△9.1)	유리제품 1,053,458 (△18.6)	화학제품 810,371 (△20.2)	축산가공품 720,184 (173.0)
2016	칼륨비료 29,177,065 (△21.6)	반도체 4,290,903 (1.2)	기타직물 1,305,424 (42.3)	광학기기 519,997 (24.9)	계측제어분석기 451,690 (219.4)
2017	칼륨비료 34,946,897 (19.8)	반도체 4,304,614 (0.3)	기타직물 1,653,598 (26.7)	기타화학공업제품 980,644 (0.0)	광학기기 463,076 (△10.9)
2018. 1~8월	칼륨비료 23,868,569 (△16.7)	반도체 2,573,814 (△14.1)	기타직물 1,524,905 (46.2)	목재류 519,402 (3,735.5)	광학기기 429,698 (31.9)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원: KITA

## 나.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투자진출 현황 및 성공사례

- 현재 벨라루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4개사인데,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3개사와 특금상사 현지법인임
  - \* LG전자, 삼성전자는 현지 영업을 전담하는 대표사무소 및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음
- SK하이닉스는 벨라루스 현지의 IT 기업을 인수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데, 다른 투자진출 기업과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투자진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 벨라루스 기업 Softeq사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1천만 달러 규모)

### □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투자진출 고려 시, 입주 고려할 수 있는 산업단지 현황

#### ① Hi-Tech Park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Парк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영문) Hi-Tech Park
설립 연도	2005년
기관 대표	Mr. Vsevolod Yanchevsky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기관 주소	Kuprevicha, 1/1, Minsk, Republic of Belarus

- 설립 근거
  - 2005년 9월 공포된「Hi-Tech Park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12호」에 근거하여 설립
    - \* HTP 운영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조직(HTP administration)을 구성
- 설립 목적
  - ICT 분야를 벨라루스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첨단산업단지로 HTP 설립
    - \* 설립 초기에는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 등 입주기업 선정에 있어 비교적 제한적으로 운영
  - 2014년 11월 대통령령 4호에 따라, 정보보안업체, 데이터 관리센터 등 IT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범위 확대
    - \* 외국기업에 IT 아웃소싱 서비스 수출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 지원

- 현황
  - 2006년 최초 입주기업 이후 현재 IT 관련 19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60%가 외국의 투자 또는 합작기업 활동 중
    - \* 입주기업 비중 : 벨라루스 기업 41%, 외국-벨 합작기업 24%, 100% 외투기업 35%
    - \* 입주기업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91.5%는 미국, 유럽 등 67개국으로 수출 목적
- 입주 혜택
  - 법인세·부동산세·부가세 면제, 근로자 소득세 9% 감면, 전체 외환소득의 20%까지 외환보유 가능
    - \* 벨라루스는 외환부족 국가로 기업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엄격히 통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 현황 : SK하이닉스

## ② Great Stone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Великий камень' (영문) Industrial Park 'Great Stone'
설립 연도	2016년 12월 28일 완공식(2010년 10월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기관 대표	Mr. Alexander Yaroshenko(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단지 위치	민스크 국제공항 인근 5km 지점, 민스크 시에서 25km 지점

- 설립 근거
  - 동 산업단지는 중-싱가포르 산업단지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18일 체결된 '벨-중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
- 설립 목적
  - 외투유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을 빌어 조성 중인 동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 \*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단지 건설 중, 총면적 91.5km<sup>2</sup>
    - \* 2016년 12월 1차 완공 이후, 구역별로 건설을 지속 추진 중
  - 첨단기술 및 혁신제품 생산기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 산업단지에서 제조된 생산 제품의 수출 확대가 발전 방향
    - \* 유치 타깃 산업 : 기계, 전자, 화학, 바이오, 소재개발, 물류 등
- 현황
  - 동 산업단지는 벨-중 간 합작이지만, 중국 이외 외국기업의 입주도 가능

- 현재 입주기업은 13개사이며, 주로 기계·정보통신·목재가공BT 기업
  - \* 입주기업 현황 : 중국 기업 11개사, 오스트리아 기업 1개사, 벨라루스 기업 1개사
- 벨 정부는 2017년 5월,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세제 혜택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16호를 승인하여 외투유치 독려 중
- 입주 혜택
  - 최초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부동산세·토지세 면제, 장비·원부자재 관세 면제
  - 10년 지난 시점부터 이후 10년간 법인세·부동산세·토지세 50% 감면, 장비·원부자재 관세는 계속 면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현황 : 현재 진출기업 없음

### ③ BelBiograd

- 기관 개요

기관 명칭	(노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арка 'Белбиоград' (영문)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ark 'BelBiograd'
설립 연도	2016년(2016년 12월에 사업자등록 완료)
기관 대표	Mr. Yuri Mechislavovich Mikitsky
기관 주소	str.,Kuprevicha 10-3-2, Minsk, Republic of Belarus

- 설립 근거
  - 동 특구 설립은 2011년 벨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발의로 최초 계획되었고, 벨 경제부에서 실질적으로 특구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
- 설립 목적
  - 나노·바이오·계약마이크로 산업 등 4대 신산업을 중점 분야로 정하고, 이들 산업을 수출 신수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BelBiograd라는 특구 설립
    - \* 알자스 바이오벨리(프), 스킨코보 테크노파크(러) 등 글로벌 클러스터 벤치마킹
  - 1) R&D 활성화, 2) 스타트업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3) 기술교류 및 이전, 4) 관련 제품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특구 조성 및 운영 중
- 현황
  - 민스크시에 Biograd 콤플렉스 조성, 민스크·고르키·비첵스크 3개 도시에 특별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이며, 전체 면적은 10.75km<sup>2</sup>에 이를 계획

- 2020년까지 86억 달러 투자유치, 190여개 입주기업 유치(해외기업 유치목표는 75개), 3만 7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

\* BelBiograd 발표에 의하면, 현재 30여개 프로젝트 진행 중

- 입주 혜택

- 최초 입주 후 20년간 법인세, 부동산세, 지방세, 장비·원부자재 관세 면제

- 한국 기업 및 기관 진출현황 : 현재 진출기업 없음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 한-벨 IT 협력센터(ITCC) 가동

- ITCC가 민스크에서 개소(2017. 3. 28)되었으며, 우리 측은 벨 측과 ITCC 공동프로젝트 수행 (△ 전자무역시스템 교육, △ 국가기록물관리, △ 국가보안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중

\* 과기정통부는 벨라루스에 IT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 중(2017~2019년, 총 100만 달러 투입)

# III 진출전략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 벨라루스 시장 SWOT 분석 ]

#### [ 지역 SWOT 분석 ]

<p><b>강 점(Strengt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에 대한 높은 신뢰도</li> <li>• 한국제품의 높은 품질과 유럽·미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li> <li>• 공공조달의 경우,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점증</li> </ul>	<p><b>약 점(Weak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운송</li> <li>• 작은 내수시장 규모</li> <li>• 부족한 외화로 인한 구매력 약화</li> <li>• 정부 입찰을 통한 구매비중이 높은 시장인 데 비해 입찰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편</li> </ul>
<p><b>기 회(Opportun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및 유럽의 장기간 제재지속으로 인해 대체 수요처로서 한국 입지 구축 가능</li> <li>•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경쟁 대상국과의 경쟁이 덜 치열한 편</li> <li>• 韓-EAEU FTA 논의 활성화</li> </ul>	<p><b>위 험(Threa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바이어 및 소비자들 구매력 약화</li> <li>• 일대일로를 배경으로 한 중국과 중국기업의 현지 진출 활발</li> </ul>



환경 변화	2014년 이후 지속된 경기약화가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		
시장 상황	산업 인프라 개선 의지 + 공공조달 수요 확대 + 민간 수입 회복세		
우리의 대응 방안	산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출	韓-EAEU FTA 대비 공공조달 시장 공략	핵심 소비재 수출확대 노력 지속
진출 전략	韓-벨라루스 경험 프로젝트 참여 (PF·시공·수출 패키지형)	공공조달 시장 진출 선도기업 및 제품 육성	유망품목 특화 마케팅 사업 추진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가. 신북방정책 연계 韓-벨라루스 경험 프로젝트를 활용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리 정부에서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 내 각 부처에서도 CIS 및 EAEU 국가와의 경제 협력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통 물류중심지로, 산업도로 제반 준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후화된 산업도로 재건설을 위해 PPP를 추진하고 있어 도로건설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 중 하나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물류교통의 중요성) 벨라루스 정부가 벨라루스의 투자유치 환경에 대해서 안내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임.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시작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유럽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연간 1억 톤 이상의 유럽발 화물이 벨라루스를 경유하고 있고, 벨라루스 내에서 이동하는 물동량 중 90%가량은 러시아와 유럽 간을 오고 가는 물동량임
- (벨라루스 도로운송의 당면 과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벨라루스의 화물운송 캐파(Capacity)에 비해 실제 물동량은 25~4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그 배경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벨라루스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에 비해 실제 벨라루스를 경유하는 물동량은 훨씬 적다는 뜻임
  - 첫째, 정시성(속도)의 문제임. 화물운송은 주로 고속국도(산업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벨라루스 내 고속국도 가운데 파손된 도로가 적지 않음. 노후화된 도로 재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개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구간이 다수임
  - 둘째, 효율성(경제성)의 문제임. 고속국도를 보면 상당수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동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일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속국도에는 야간 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화물 트럭 운전사가 사고위험 때문에 야간 운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즉, 하루 24시간 전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인프라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현황) 벨라루스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도로 건설·유지보수·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대략 15% 내외이며, 금액으로 보면 23억 달러 내외로 파악됨.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지보수에 쓰이고 있는데, 신규 건설에 지출되는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음
  -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들여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렇다 보니 세계은행, EBRD와 같은 개발은행 유상원조를 받아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강함
- (산업도로 재건설 PPP 추진) 한국도로공사, 벨라루스 최초의 PPP 사업인 M-10 산업도로 재건설 프로젝트에 투자·시공 컨소시엄 참여 예정임
  - 2016년 10월 무역관에서 프로젝트 최초 발굴 이후, 국내 건설사 및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대상 프로젝트 정보를 전파하였음
    - \* 대사관·무역관 공조로 신북방정책 경험 어젠다화 → 양국 국토부 MOU 체결 예정(2018년 5월)
  - 한국도로공사, PF 참여에 대해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 중
    - \* 벨라루스 도로공사(벨압토도르)와 MOU 체결(2018년 4월), 컨소시엄 구성 참여 예정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교통관제시스템) 벨라루스에도 교통관제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민스크시 등 대도시 시내 도로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음. 고속국도 전체를 관리하거나, 도로 안전관리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ITS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벨라루스 교통통신부 도로관리국장인 Mr. Alexander Golvnev에 따르면, 벨라루스 내에도 ITS 개발역량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로컬 기업이 2개사 있다고 함. 무역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검색해본 결과, 소규모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을 뿐 우리나라 기업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현재로서 벨라루스 내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 재건설 및 개보수 과정에서 차츰 시스템 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개발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SI(System Integrator)가 컨설팅부터 관련 장비 납품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여겨짐
- (도로안전시설) 안전시설에는 가로등, 방호벽, 텔리네이터(반사식 시선유도장치)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속해 있음. 고속국도 재건설이 확대된다면, 안전시설에 대한 수입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수의 안전시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텔리네이터와 같은 특수제품의 경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HS코드 8608(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제품의 벨라루스 수입동향을 살펴

보면, 연간 수입규모가 대략 1,500만 달러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상 아직 우리 제품이 직수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8608 제품 전체가 벨리네이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벨리네이터 제품의 HS코드로 8608을 많이 쓰고 있음. 아울러, 우리 제품이 러시아를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면, 우리 제품이 벨라루스로 전혀 수출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음

- 벨라루스 내 유통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상당수가 러시아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을 감안하면 우리 제품이 진출할 여지가 많은 분야임

[ HS코드 8608 제품의 벨라루스 수입동향 ]

(단위: 달러)

2016		2017		2018. 1~5	
수입총액	13,675,600	수입총액	15,779,400	수입총액	8,931,500
러시아	10,244,600	러시아	10,853,300	러시아	4,734,100
우크라이나	2,504,900	우크라이나	2,966,500	우크라이나	2,513,900
중 국	621,400	라트비아	686,200	영 국	808,100
이탈리아	217,600	중 국	570,100	체 코	686,500
체 코	57,900	체 코	366,200	중 국	168,300

주: HS 8608 :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나. 한-EAEU FTA 대비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 공략 확대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구소련권 국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로 EU와의 무역분쟁 심화, EAEU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 \* EAEU 출범 후 EAEU 회원국 對EU 수입 대폭 감소(2013년 대비 2016년 수입규모 50% 이상 감소)
- EU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 진출 확대 필요
  - \*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설비 등 EAEU 내 자국기업 경쟁력 미약 분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시장 진출기회 점증
- 벨라루스의 경우, 만성적인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납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
  - \*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구소련권 국가 EAEU 창설을 통해 EU와 각을 세우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
  - 2012년 8월 러 WTO 가입 후, 2013년부터 러-EU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었음
    - \* 2013년 러 정부, 수입차에 대한 폐차세 부과 추진, EU는 WTO에 동 건 제소 등
    - \* 러 정부는 국영기업의 설비·기계 도입 시, 자국산 설비 의무사용비율(80%) 지정 조치

- 러시아 주도로 벨라루스를 포함한 EAEU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AEU 회원국 내 자국기업의 생산력 및 기존 수입품 대체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EAEU 출범 이후 회원국 5개국의 對EU 수입은 대폭 감소되어서,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들의 대체제 발굴이 시급한 시점임
    - \* 對EU 수입 감소분을 한·중·일 3국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의 타 EAEU 회원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한-EAEU FTA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FTA 체결에 대비해서 EAEU 시장 내 FTA 선점효과를 적극 누릴 수 있는 진출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임
  - EAEU와 메가 FTA 체결에 대비, CIS 핵심시장을 일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에 우리 기업이 전력을 기울여야 함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EAEU FTA 체결 전) 기존 EU 수입제품 시장의 공극(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함
  - 한-EAEU FTA의 조속한 체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 진출 루트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 EU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유망품목 선별 후 진출
  - 의약품, 의료기기 등 EAEU 내 벨라루스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미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AEU 공공조달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
    - \* EAEU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
- (한-EAEU FTA 체결 후) 관세인하 혜택, 서비스시장 개방 등 호재를 활용, EAEU 조달시장 기 진출 품목의 수출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전략이 유효함
  - 기 진출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출 확대
- (진출 유망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 소비자·기계류 등에 비해 의약품·의료기기는 초기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반면에,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인 관계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CIS 국가의 경제침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정부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함
    - \* (벨라루스 보건부) 다국적기업에서 공급받던 고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기에는 예산 부족 → 국제적으로 품질이 검증되었고, 비교적 저렴한 한국산 의약품 수급 희망

## 다. 소비심리 회복에 편승해 유망 소비재 품목 현지 수출 확대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2015~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겪는 등, 벨라루스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음.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음
- 2017년 하반기부터 차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18년 들어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화장품 등 우리의 주요 소비재 수출품 유통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인구 천만에 가까운 벨라루스 소비시장 공략을 통해,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의 밑거름으로 활용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3대 소비재) 자동차부품·화장품·식품 중심으로 벨라루스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팝업스토어 운영) 현지 파트너(수입기업)와 함께 민스크 시내 대형 쇼핑몰 내 판촉 매대를 설치하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에는 체인스토어 내 마스크팩 전문 코너(매대)가 설치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인플루언서 활용 제품 홍보) 식품과 같이 현지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의 경우, 한류 아이টে을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 \* 한류 아이টে 업로드 중인 현지 유튜버(Anna Shi: 한국유학 경험, 구독자 2만 6천 명) 활용 가능
  - \* 무역관에서 지원 중인 한국 화장품 홍보영상 업로드, 식품으로 확대 예정

# 첨부 1

## 수출유망 품목

품목 1	HS Code	2941		수입관세율(%)	0	
		3003			0	
		3004		0, 3, 4, 5, 6.5		
인체의약품 (백신,항생제, 전문 의약품 등)	수입액 (`17/US\$백만)	HS 2941	40.38	대한수입액 (`17/US\$백만)	HS 2941	0.61
		HS 3003	29.07		HS 3003	1.51
		HS 3004	473.33		HS 3004	0.3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점증</li> <li>- 전문의약품 가운데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조달 대행기관인 '벨파르마지야' 인터뷰 결과, 정부 예산 절감 등 차원에서 기존의 고가 전문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문 의약품 조달 확대 예정이라고 함</li> <li>- HS 2941/3003/3004 제품 관련 2018년 1~8월까지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1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하였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독일, 러시아, 인도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벨라루스 정부 및 국공립 병원에서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보건복지부 및 현지 국공립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목록을 확보한 후, 우리 의약품 제조기업 또는 도매상이 공급 가능한 제품에 대해 현지 진출 실시</li> </ul>					
품목 2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6.5	
화장품	수입액 (`17/US\$백만)	67.38		대한수입액 (`17/US\$백만)	0.3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는 별도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또한 한국제품 품질에 대해 만족하여 기 사용자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li> <li>- 특히 마스크팩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 시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 직수입 제품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제품이 벨라루스로 우회 수입되는 물량도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됨</li> <li>- HS 3304 제품 관련 2018년 1~8월까지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40만 7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산, 자국산 등이 시장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유럽산 화장품은 메이크업 중심이며, 벨라루스산 제품은 중산층 이하가 주로 소비하고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상들이 대부분 영세하므로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li> <li>- 대량 주문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소량 주문 대응 필요</li> </ul>				
품목 3	HS Code	8209		수입관세율(%)	3, 5	
		8414			0, 5	
		8419			0, 5	
		8479			0, 2	
산업기계류 전반(공구, 부품 등)	수입액 (`17/US\$백만)	HS 8209	16.67	대한수입액 (`17/US\$백만)	HS 8209	0.71
		HS 8414	143.22		HS 8414	0.06
		HS 8419	211.98		HS 8419	0.13
		HS 8479	144.05		HS 8479	1.0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자국 내 제조업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 점증</li> <li>- 대형 기계류 이외에 절삭기기 등 공구류에 대한 관심 점증</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내 제조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 생산제품의 질이 날이 갈 수록 떨어지고 있음. 제품 품질 저하의 원인은 다양한데 노후화된 생산장비 문제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li> <li>-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사 등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는데, 무역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분석해 보면, 금속가공 기계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음</li> <li>- 정밀한 절삭·가공기술을 요하는 공구, 기계에 대한 수출이 2018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고, 바이어들 인터뷰 결과(M사), 이전에 시멘트 절삭기계만을 취급하던 바이어도 금속절삭기구를 찾는 등 시장 내 수요가 감지되고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산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가격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업자들은 중국산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는 편임</li> <li>- 그러나 품질 대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산 기계·설비가 우수하다는 것을 수입자들도 잘 알고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현지 제조업체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관계로, 입찰을 통한 납품이 불가피함</li> <li>- 정부입찰에 전문화된 현지 벤더 중심으로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출 방안임</li> </ul>				
품목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5, 10		
자동차부품	수입액 ('17/US\$백만)	373.64	대한수입액 ('17/US\$백만)	27.70		
	선정사유	- 벨라루스 내 한국산 자동차부품 교체시기 도래에 따라, 향후에도 부품 수입수요 지속 증가 예상				
	시장동향	- 벨라루스 승용차 시장은 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한국산 차량 유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 러시아, 독일, 중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과 제휴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구사가 필요함				
품목 5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2, 3, 5, 7		
		9027		0, 3		
의료기기	수입액 ('17/US\$백만)	HS 9018	166.85	대한수입액 ('17/US\$백만)	HS 9018	0.70
		HS 9027	53.10		HS 9027	1.4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년 전 구매했던 장비의 교체시기 도래</li> <li>- 혈액분석 등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 점증</li> <li>- 사립병원 증가에 따라, 의료장비 수요 지속</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초정밀 진단기기보다는 사립병원에서 초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 중심으로 수요 증대</li> <li>- 최근의 진단기기,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li> <li>- 아울러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진단기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li> </ul>				
	경쟁동향	- 미국, 독일, 중국, 일본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품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의 진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 현지에 의료기기 수입기업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음</li> <li>- 기존에 독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던 바이어 대상 한국제품 소개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함</li> </ul>					



##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 2020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음. 2018년 1월 벨라루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대규모의 선거 2개를 한 해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1개 선거는 2019년에 조기 선거를 치를 것을 고려한다고 함
- 2018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대선과 총선 가운데 어떤 선거를 2019년에 치를지 정해진 바가 없음

### □ 주요 문화/체육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 <sup>nd</sup> European Games	2019. 6. 21~30	15개 종목 4천여 명 참가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신발/의류/원단/재봉사 박람회 ВСЕ ДЛЯ ШВЕЙНИКА 2019	2019. 2. 20~22	<a href="https://expomap.ru/expo/obuv-odezhda-tekstil-2019/">https://expomap.ru/expo/obuv-odezhda-tekstil-2019/</a>
조명 전시회 Электротех. Свет 2019	2019. 3. 12~15	<a href="https://expomap.ru/expo/elektroteh-svet-2019/">https://expomap.ru/expo/elektroteh-svet-2019/</a>
아동 박람회 World of Childhood 2019	2019년 3월경 (잠정)	-
치과 전시회 BelarusDent 2019	2019년 10월경 (잠정)	<a href="https://worldexpo.pro/exhibition/stomatologiya-belarusi-belarusdent-2018">https://worldexpo.pro/exhibition/stomatologiya-belarusi-belarusdent-2018</a>
Inter Style 2019	2019년 11월경	화장품/헤어/뷰티 관련 박람회

### 담당자

민스크 무역관 주한일  
Tel 070-7001-0611

직책 관장  
Email joohanil@kotra.or.kr

# 2019 국별 진출전략

벨라루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